



전남 나주군의 양돈현황

후백제의 영지로 영강강 유역의 중심지 나주군

취재 : 곽 삼 섭 기자

개벽의 하늘이 열릴때
복받은 낙원으로
비단결 같은 땅이 펼쳐졌으니
여기는 남도의 가슴—
의기가 고동(鼓動)치는 나주—
자자손손 영원히 뿌리를 뺀고
무성한 숲을 이룰 우리고향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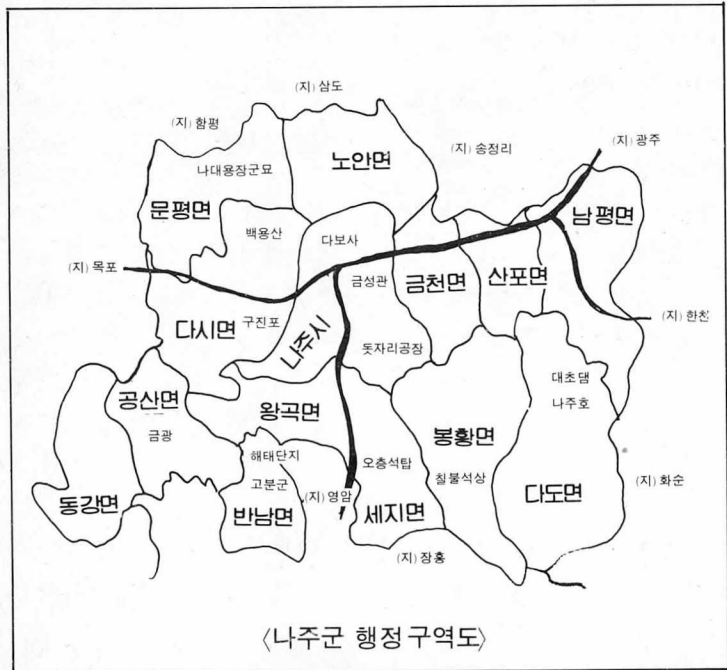
당신은
남도의 가슴
정다운 어머니— 나주여
천만년 복을 누릴 나주인이여.

이 글은 허연(군지 집필위원)이
지은 나주찬가중의 일부 귀절이다.

통일신라시대에 금성군 (일명 금산)이라 칭하다 효공왕 7년에 나주라 개칭

나주군은 삼한시대에 마한의 땅
으로써 마한 54개 부족국가중 불미
지국이었다. 백제시대에는 발라·
통의라 칭하였고, 그후 통일신라시
대에는 금성군(일명 금산)이라 칭
하다가 효공왕 7년(903년)에 나주
라 개칭되었으며, 후백제시대에는
후백제의 영지로 알려져 왔다.

옛부터 인물이 많이 배출된 양반
고을로 살기 좋고 인심 좋은 고장
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불의에
굽힐줄 모르는 끈질긴 투지로 국가
의 위난이 있을 때마다 구국대열에
항상 앞장서 온 군민임을 역사적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고려 현종
2년(서기 1011년) 계단이 침입해
서 승승장구 남진해 올때 한때 이
곳에 항도해 온 왕을 모시고 온군
민이 일치단결해서 반격전을 전개
하여 승전했음은 물론, 10일동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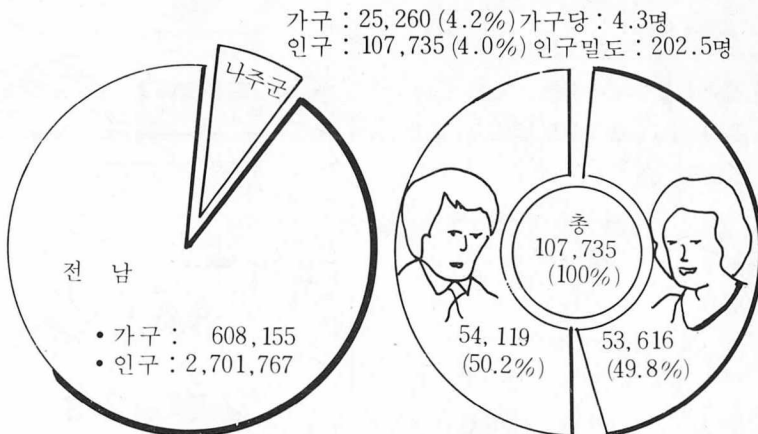
짧은 기간이나마 이 고장은 한때 왕도로서 군림했음은 나주군의 자랑이다.

또한 임진왜란시 김천익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키고, 각처에 격문을 보내어 서울탈환과 진주성 사수에 뛰어난 공적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이 당시 이순신 장군의 모장으로서 거북선 제조에 공이 많은 나대용 장군의 출생지이며, 이조의 석학 신숙주의 태생지로서 인물이 많이 배출된 곳을 증명해 주고 있다.

남평을 노래한 이발의 시에 「人物多賢, 民心淳厚」라 했고, 나주민을 「居人淳朴, 無外慕力田爲業」이라고 정도전이 표기한 것으로 보아, 이 고장 사람들이 순박하여 다른 생각없이 오직 농업에 힘쓰는 것을 업으로 삼았음을 엿볼 수 있다. 또 이에의 시에도 한결같이 「民俗淳化」라고 밝혔으니 이것만으로도 나주민의 특성을 능히 짐작할 만하다.

'81년 나주·영산포읍 2개읍이 나주시로 승격, 13면만 나주군의 영역

역사의 흐름과 시대의 변천속에서 나주군은 지역분할의 새로운 도래를 예고했던 것 같다. 1927년 7월에 영산면이 영산포읍으로 승격하였고, 1931년 11월에 나주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2읍 16면으로 개편되기도 했다. 8.15해방 후 1949년 8월 15일 삼도면, 평동면, 본량면이



〈그림 1〉 전남대비 나주군 가구 및 인구 분포 현황

광산군으로 이속되어 2읍 13면으로 되었다. 그후에도 1981년 7월 1일 나주, 영산포 2개읍이 나주시(금성시)로 승격되었고, 현재는 13면만 나주군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전남대비 나주군의 가구 및 인구 분포 현황을 보면 이 고장의 변화 추세를 잘 알 수 있다. '88년도 나주군은 2만5천2백60가구에 인구는 10만7천7백35명으로서 가구당 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남의 6만8천1백55가구에 비해 4.2%, 인구는 2백70만1천7백67명에 비해 4.0%에 해당되는 비율로서 해가 지날수록 가구 및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배(梨)는 나주군의 상징이다. 배꽃은 흰빛을 지니고 있어 순결함을 표현하고, 다함께 피고 지므로 이곳 사람들의 굳은 단결심을 상징한다. 군화와 함께 군목으로는 배나무이고, 또 평화를 상징한다는 비둘기를

군조로 정해 자립하는 군민의 더높은 정기를 잘 표현하고 있다. 특히 군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배나무에서 생산되는 나주배(금춘추의 5종)는 이 지역의 특산물로도 유명하다. 나주전체 재배면적의 6백82ha에 연간 1만9백78만톤 가량이 생산되고 있다.

한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나주군의 면적은 532.03km²로서 전남의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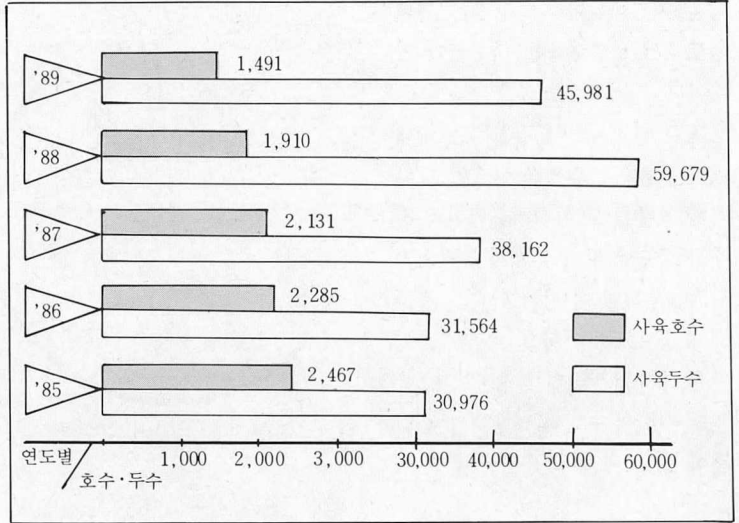
한반도의 남서부에 위치한 나주군은 호남지방 및 전라남도의 중앙서북부에 자리잡고 있다. 나주에서 광주까지는 26.7km로서 약 30분정도 소요되는 광주생산권의 근교일뿐아니라, 인근시·군을 통하는 교통상의 경유지이기도 하다. 중앙에 나주시를 품고 있으며, 우리나라 4대강의 하나인 영산강이 중앙을 뚫어 지세를 남북으로 양분하고 있다. 동으로는 화순군, 서로는 함평군과

무안군, 남으로는 영암군, 북으로는 광주직할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특히 화순군으로부터 흐르는 지석강, 광주천, 황용강 및 극락강이 영산강과 합류하고 있다.

영산강 유역의 나주평야는 중적지의 비옥한 토성과 기후, 수리가 농업에 적합한 천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풍부한 인력의 기초위에 농업이 자립산업으로 꾸준히 발전한 것도 나주민의 농심이라 자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남과 서북간에 국부적인 산악이 기복하나 태반이 구릉평야로 연속되어 남북으로 연결하는 남평, 금천, 다시평야는 평탄한 구릉을 서로 이어주는 호남곡창을 상징하기도 한다.

나주군의 면적은 532.03km²로서 전라남도 총면적 12,059.75km²의 4.4%에 불과하다. 토지이용면적은 농경지면적이 208.07km²로 총면적이 39.1%에 해당된다. 이것을 세분하면 답이 141.26km²로서 총면적의 26.6%, 전이 66.81km²로서 총면적의 12.6%에 해당된다. 그리고 임야는 231.05km²로서 총면적의 43.4%에 달하고 있으며, 기타 토지이용면적은 92.91km²로서 총면적의 17.5%를 점하고 있다.

여기서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 및 인구는 전체 나주군민의 80% 정도가 된다. 농가수와 농업인구를 보면 2만4백66가구에 7만5천3백44명으로서 전업농가가 1만8천5백76가구(90.8%)에 6만7천68명, 1종겸업농가는 8백78가구(4.3



〈그림2〉 나주군 돼지 사육호수 및 사육두수 변동 현황

%)에 4천37명, 2종겸업농가는 1천12가구(4.9%)에 4천2백39명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9년 현재 돼지사육농가는 1천4백91호, 사육두수는 4만5천9백81두

전라남도의 어느 지역보다 양돈업 역시 성장의 기반을 갖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전국의 평균 호당 마리수보다는 높지만 전업농가보다는 영세농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이 지역 양돈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기도 하다.

나주군의 돼지 사육호수 및 사육두수를 보면 양돈업의 변화현상을 잘 알 수 있다. '89년 현재 사육농가는 1천4백91호, 사육두수는 4만5천9백81두로 집계되어 있다. 이것은 '88년의 1천9백10호에 5만9천6

백79두보다는 4백19호, 두수로는 1만3천6백98두가 줄어든 통계수치이다. 또 '87년의 2천1백31호보다는 6백40호가 줄어든 반면, 사육두수면에서는 3만8천1백62두보다 7천8백19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육두수의 증가에 따라 사육호수의 감소현상은 미약하나마 전업화 추세가 가시화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영산강을 끼고 있어 분뇨처리문제 등 환경공해를 이유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도 타지역과 마찬가지로이다. 양계업이나 낙농업의 경우와 비슷한 환경에서 광주근교의 축산입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양돈인들의 일치단결된 힘의 원천이다.

최근 농림수산부가 밝힌 '90년 축산정책 가운데 나주에 63억2천6백만원의 지원해 1일 소 100두, 돼

〈표1〉 나주군 면별 돼지사육호수 및 사육두수 현황

연도(구분)	면별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남평면	다도면	봉황면	계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89	호수	34	112	17	30	28	147	127	181	87	260	149	169	150	1,491
	두수	761	3,967	3,455	945	379	1,115	1,409	16,491	3,102	8,465	1,251	583	4,058	45,981
'88	호수	63	86	38	21	41	128	169	275	147	275	275	166	226	1,910
	두수	979	2,804	3,796	204	366	1,251	1,630	28,536	3,336	8,991	2,110	573	5,103	59,679
'87	호수	49	86	39	43	54	128	202	251	141	280	432	175	251	2,131
	두수	563	1,640	3,894	392	392	1,251	1,402	10,556	3,119	9,057	2,173	585	3,138	38,162

〈표2〉 전남 나주군 증돈장 현황

증돈장명	대표자	소재지	혈통등록 두수			일 반 검정두수	기간 중 증돈판매
			계(두)	우	♂		
금성증돈장	김덕진	전남 나주군 왕곡면 신원리	110	101	9	110	-
광암축산	이내홍	전남 나주군 노안면 유곡리	66	55	11	66	129
금천증돈장	박상옥	전남 나주군 금천면 동악리	172	158	14	172	42
해태양돈사업부	강남형	전남 나주군 반남면 청송리	299	279	20	299	437
은성축산	김수남	전남 나주군 노안면 유곡리	162	142	20	162	433
대지농장	김길용	전남 나주군 봉황면 죽석리	37	31	6	37	-
안촌증돈장	김정열	전남 나주군 노안면 오정리	60	52	8	60	-

* 농림수산부 증돈업 통계자료('89년 6월)

지 700두를 처리할 수 있는 축산물
공판장을 금년내에 준공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이 지역 축산농가들
에게 큰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처럼 양돈업이 광주근교 축산
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양돈협회 나주지부의 활동영
역에서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다. 비
록 협회 회원은 40여명에 불과하지
만, 이들 회원들이 조직의 일원으로
서 양돈업 발전에 기여하는 모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군청 축정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증돈장에서 수입돈을 많이
들여와 증돈개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지역의 양
돈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시설의 현대화
는 물론 사양기술면에서 앞장서 가

타지역보다 증돈업등록 업체가 많아 일부농가들 증돈개량의 중요성 인식

고 있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역시 타지역보다는 증돈
업 등록업체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몇몇 소규모 농가를 제
외하고는 일부 농가들이 증돈개량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하나 특징적인 것은 경제성장
과 함께 도시·농촌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런 본보기는 대개의 양돈인들이 양
돈업을 천직으로 알고 주기적인 양
돈불황에 대처, 비교적 안정된 양돈
경영을 하는데 스스로 기여하고 있

다는 것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든 시설이 도시중
심으로 편중되면서 농민들은 상대
적으로 빈곤감과 열등감에 사로잡
혀 무료하기 그지없는 생활을 강요
받거나 아예 체념적인 상태로까지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바쁜
농번기보다는 쉬는 날이 많은 농한
기에 접어들면 경제적 빈곤까지 겹
쳐 이중삼중으로 멍들고 있다.

나주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회
지의 병폐인 과소비와 투기현상까
지 편승, 이에 대한 면역성이 없는
농촌을 마구 피폐시키고 있는 듯했
다. 경제적인 균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도시나 농촌이 문화적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근본대
책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
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한민**